

 경기도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10 장인의 혼을 찾아서...

도자공예 신 규 식

“모든 작품의 근본은 우리것,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숨쉬는 전통적인 맥을 잇는다는 정신입니다. 그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고 전자파 차단 공예품이나 ‘명당수기’ 처럼 다양한 기능을 결합시킨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노하우도 생겼고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쓸 생각입니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가평군 가평읍 북장리 462
- 대중교통
청평터미널 - 북장리(행) - 신도요 하차
※ 번호가 없는 북장리행 버스입니다.
- 자가운전
75번 국도
- 약도



유골 향아리 분야에서 초일류를 지향하고 인간중심적,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개혁을 선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지상에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기업”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친환경, 친인간 기업 신한국도자기 도예작가 신규식 대표는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또한 20년간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온 그의 모습에서 이제는 진정한 자연과 일치되는 신비한 전통도예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의 멋에 현대의 섬세함을 입힌다.

신한국도자기는 전통도자기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고 명지대학교에서 주관한 “비전 2002 도자기관광 상품개발 사업”에 2년간 참여 산·학 공동으로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둔 업체이기도 하다. 이 결과로 신한국도자기는 2000년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관련 관광상품 유망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한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인들로 부터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도예품은 첫 공정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가 수공예 의해서 이루어진다.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기계화 자동화의 이점을 모를 리 없지만 사람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움과 함께 호흡하는 수작업만이 진정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 작가의 신념이다. 이렇듯 그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베어나오는 자연의 향기는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움이다. 그러나 신작가는 예것만을 고집하는데서 멈추지 않는다. 옛것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세련됨을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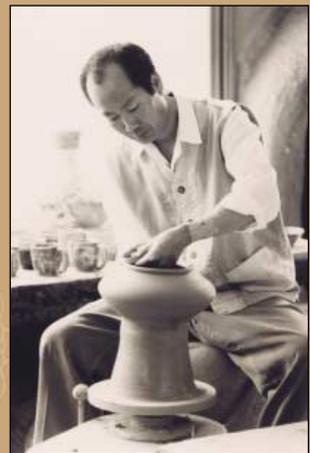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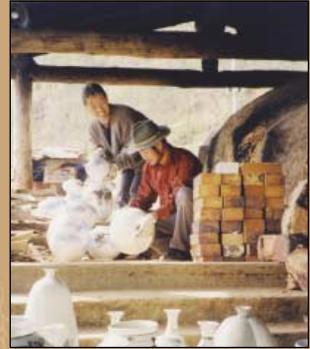


시대를 초월한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천연유약을 유골함에 적용한 ‘명당수기’는 작품성과 예술성이 현대기법으로 잘 표현된 수작이다.

“명당은 물길과 불길이 지나면 안되고 일조량과 통풍이 적절해야 하며 산수가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를 ‘명당수기’에 적용하여 항아리에 통공을 뚫어 통풍을 원활히 했으며 외부면에 산수화를 그려 넣어 수려함을 갖추고 천연유약과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흙 소재를 사용하여 습기를 막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 대표는 ‘명당수기’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최고의 마지막 예(禮)라는 정성으로 빚었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납골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날에는 납골단지의 내·외부 온도차로 결로현상이 발생, 골분으로 수분이 흘러내려 흡수되면서 납골이 뭉쳐지거나, 습한 날씨에는 습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다가 공기중에 포함된 수분이 유골에 흡수되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유골이 쉽게 부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신한국도자기에서 연구개발한 ‘명당수기’는 이러한 유골항아리의 단점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하여 명당적인 요소를 항아리에 재현한 것으로 유골을 오래도록 원형상태로 보존할 최적의 유골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당수기’ 중 복합형(이중항아리)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이중항아리로 구성하여 온도차이를 최소화함은 물론 내·외부의 공기가 일정하게 순환되도록 통공 9개를 만들어 결로현상을 막아준다.

둘째, 특허를 받은 천연유약의 우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명지대학교 신한국도자기연구센터와 산·학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소나무재와 솔잎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내·외부로 자연적인 공기통풍효과와 습기, 부패, 냄새, 이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물론 쾌적한 질감이 연출되어 유골함의 무게와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셋째, 내부항아리의 경우 흙에 특수재를 혼합시켜 성형한 후, 초벌구이에 의해 열처리를 하는데, 이때 특수재질을 사용함에 따라 재질에 의한 호흡작용과 원적외선에 의한 온열작용이 발생하여 항아리 내부의 온도가 적정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단일항아리(단순형)는 복합형과는 달리 단일항아리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형에 기능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항아리 뚜껑에



외부와 공기순환이 되도록 3개의 통공을 뚫어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했고 뚜껑 내부에 영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천연 방습제를 투입하여 습기, 부패, 냄새, 이물질이 생기지 않는 기능을 갖도록 고안되어 있다. 복합형(내부항아리)과 마찬가지로 단순형에도 뚜껑의 흔들림과 떨어짐의 방지를 위해 뚜껑과 몸통을 끈으로 연결하는 부위 3곳에 두꺼비 형상의 고리를 부착했다. 이는 관리상의 실수나 지진 등을 고려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에 표현된 두꺼비는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수호신으로 고대문헌에 많이 표현된 것을 참고하여 유골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흙은 영원한 고향이며 모성이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영원한 고향이며 모성이다. 누구나 흙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평등인지 모른다... 그에게서는 남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특별한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최소의 예를 갖출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몸에 베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명당수기’는 이름 그대로 명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연환경적 요소들을 항아리에 모두 담았기에 유골을 오랜 세월 원형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유골항아리라 할 수 있다.

신 대표는 ‘명당수기(明堂壽器)’가 이름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의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장인정신으로 빚어내는 도예공의 바람이라고 전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